

복 수 가

단군 자손 우리 소년 국치민옥 네 아느냐
부모 장사할 곳 없고 자손까지 종되었네
천지 넓고 넓건만 의지할 곳 어대냐
간 데마다 천대고 까닭없이 구축(驅逐)되어
잇었느냐 잇었느냐 우리 원수 합병수치를 네가 잇었느냐
자유와 독립을 다시 찾기로 우리 헌신에 전혀 있도다
나라가 없는 우리 동포 살아 있기 부끄럽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나라 수치 씻어놓고
뼈와 살은 거름되어 논과 밭에 유익되네
우리 목적 이것이니 잊지 말고 나아가세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외국 나온 소년들아
우리 원수 누구더냐 이를 갈고 분발하여
백두산에 칼을 갈고 두만강에 말을 먹여
앞으로 갓 하는 소리에 승전고를 울려
등등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해설 : 올해는 국치 100년이 되는 해다. 우리가 주체적 힘이 없어 일본에게 국토를 강탈당한 비운의 세기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역사관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나라 수치 씻어놓고 뼈와 살은 거름되어 논과 밭에 유익되네” 선인들의 눈물겨운 노래가 그림다.

2010 03*04

통권 50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청산하지 못한 경술국치 100년의 굴레 | 정희상



07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1910년 한일조약에 관한 법사학적 재검토

| 김창록



14

독립운동

이동녕의 삶과 정신 | 이현희

20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랜드 앤 프리덤〉, 그들의 패배에도 경의를

| 이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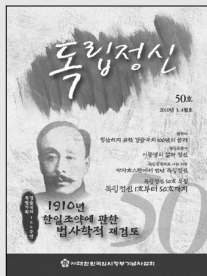


24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독립정신

| 홍용희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홍윤희, 박상희, 박관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29 청년특집_Campus Life
 2010년 친일 청산의 문제
 | 류동연

33 50호 특집
 독립정신 1~50까지 | 편집부

37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특집
 안중근 의사 유묵전

41 길을 찾아서
 '임정은 나의 고향'...항일역사 낱알이 증언할터

43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46 임정서가
 친일인명사전과 임종국 선생 <친일인명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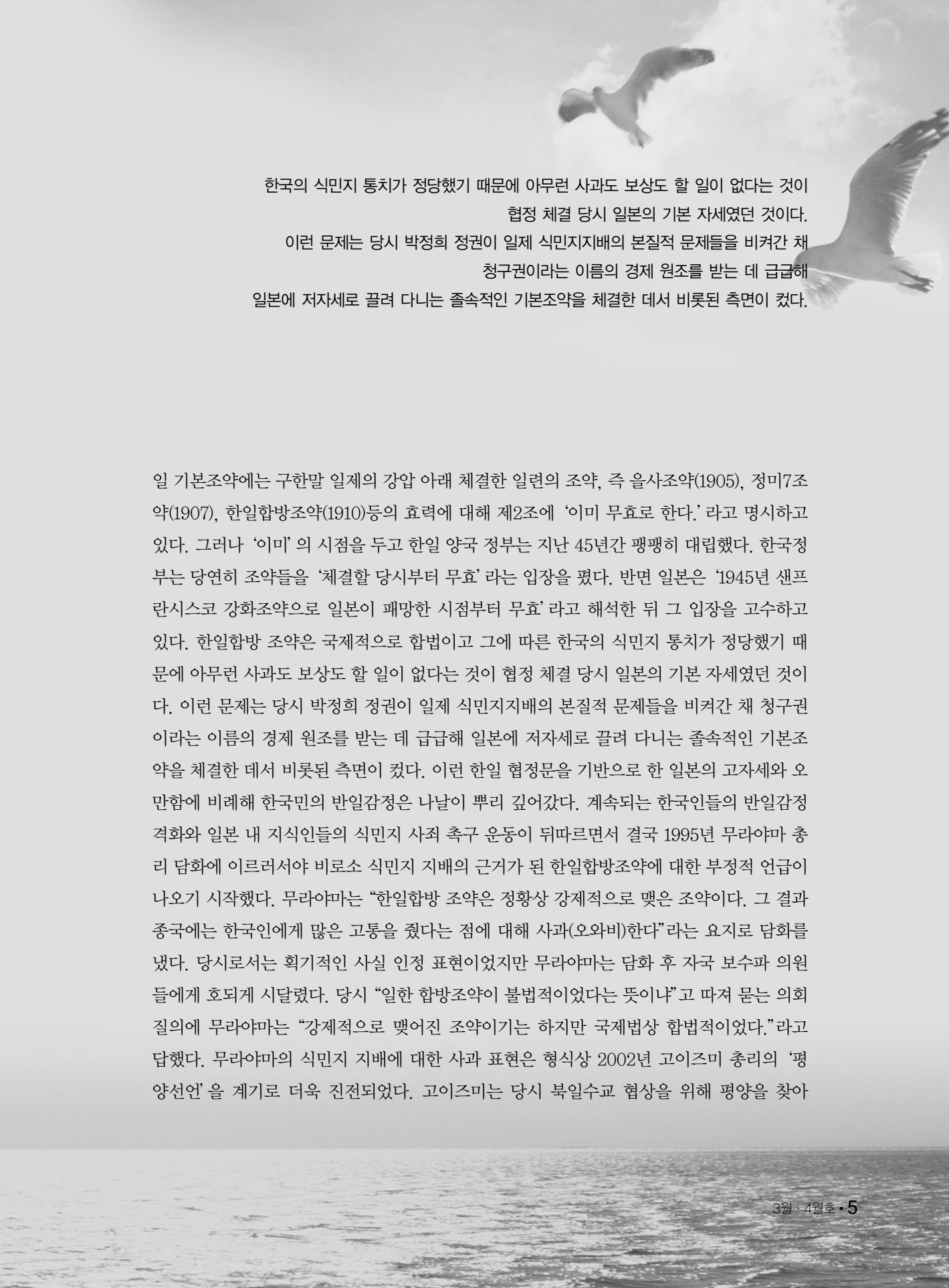
청산하지 못한 경술국치 100년의 골레



정희상
시사IN 기획특집팀장



2010년 새해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기념일이 많이 든 해다. 그 가운데 20세기를 통틀어 국토와 겨레의 운명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원죄라 할 ‘경술국치’ 100주년을 빠뜨릴 수 없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 세기 넘도록 지속된 원죄의 골레를 이제는 벗어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5천년 민족사에 가장 부끄러운 날로 꼽히는 1910년 8월22일 경술국치에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그럴 듯 하게’ 체결한 조약이 자리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 사법 군사권을 차례로 빼앗아간 일본은 국권 찬탈 마지막 과정으로 ‘합방 조약’을 체결했다. 이날로 조선왕조 519년 역사는 막을 내렸고 36년간 치욕스런 일본의 식민 통치가 이어졌다. 비록 1945년 해방 후 남북이 갈려 저마다 독립국가의 기치를 내건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일본 식민지 지배가 뿌린 악의 씨앗은 여전히 한일 양국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한일 양국관계의 질곡을 이제는 끊어내자는 조용한 움직임이 한일합방 100년 만에 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가 이제는 진정한 참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본 내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양심적인 목소리와 활동이 돋보인다. 이들은 새해 들어 그 상징적 첫걸음으로 100년 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합방 조약’을 하토야마 총리가 나서서 불법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도쿄대학 사카모토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무샤 코지 전 유엔대학 부총장, 오에 겐자부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요카 미야 아사히신문 주간 등 일본 내에서 대표적 지한파이자 양심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이들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일합방 조약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1965년 한일 국교수립 당시 체결한 한



한국의 식민지 통치가 정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기본 자세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본질적 문제들을 비켜간 채
청구권이라는 이름의 경제 원조를 받는 데 급급해
일본에 저자세로 끌려 다니는 졸속적인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일 기본조약에는 구한말 일제의 강압 아래 체결한 일련의 조약, 즉 을사조약(1905), 정미7조약(1907), 한일합방조약(1910)등의 효력에 대해 제2조에 ‘이미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의 시점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45년간 팽팽히 대립했다. 한국정부는 당연히 조약들을 ‘체결할 당시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폈다. 반면 일본은 ‘194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패망한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한 뒤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적으로 합법이고 그에 따른 한국의 식민지 통치가 정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기본 자세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본질적 문제들을 비켜간 채 청구권이라는 이름의 경제 원조를 받는 데 급급해 일본에 저자세로 끌려 다니는 졸속적인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이런 한일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고자세와 오만함에 비례해 한국민의 반일감정은 나날이 뿌리 깊어갔다. 계속되는 한국인들의 반일감정 격화와 일본 내 지식인들의 식민지 사죄 촉구 운동이 뒤따르면서 결국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된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라야마는 “한일합방 조약은 정황상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다. 그 결과 중국에는 한국인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는 점에 대해 사과(오와비)한다”라는 요지로 담화를 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실 인정 표현이었지만 무라야마는 담화 후 자국 보수파 의원들에게 호되게 시달렸다. 당시 “일한 합방조약이 불법적이었다는 뜻이냐”고 따져 묻는 의회 질의에 무라야마는 “강제적으로 맺어진 조약이기는 하지만 국제법상 합법적이었다.”라고 답했다. 무라야마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표현은 형식상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을 계기로 더욱 진전되었다. 고이즈미는 당시 북일수교 협상을 위해 평양을 찾아

“조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 성격의 합병을 함으로써 조선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이에 대해 사과(오와비)한다”라고 표현했다. 역사적으로 나온 일본 정부 차원의 최고 사과 표현이다. 결국 지금까지 정리된 한일합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합법 조약이지만 체결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고, 이후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정도로 정리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주장하는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역사학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역사학계의 끈질긴 연구와 고증을 통해 한일합방을 포함해 구한말 일제와 맺은 일련의 조약 자체가 국제법에 비춰 불법이라고 볼 증거가 잇따라 발견된 것이다. 먼저 2005년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 조약문에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고 황제 순종의 친필 서명이 없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이는 한일합방이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체결됐기에 합법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은 것으로 국제법상 당시부터 무효임을 뒷받침한다. 또 서울대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는 지난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문서의 물리적 외형적 특징을 비교한 뒤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가 동일인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밝히고 그 근거를 공개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했던 1910년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일본이 양국 문서를 모두 만들어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병탄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비록 사죄보다는 약한 사과(오와비) 표현을 썼지만 한국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준 점도 인정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조약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논리적으로 무효가 완성되는 셈이다. 올해 한일 양국 지식인들은 한일 합방 100주년을 맞아 고이즈미의 평양선언에 이어 8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토야마 담화’ 내지 ‘일본 국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일본 천왕 방한을 성사시킬 포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합방 불법 무효화를 선언같은 근본적인 과거사 해결 의지를 내놓지 않는 한 천왕 방한 추진은 한국민의 거센 반발만 불러올 것이다. ㉠

1910년 한일조약에 관한 법사학적(法史學的) 재검토¹⁾

김창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관보 호외」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라는 조문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병합조약」이 게재·공포되었다. 이 조약은 이후 35년간 이어진 제국주의국가 일본(이하 ‘일제’)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법적 근거로서 주장되어 왔다. 올해 2010년은 이 조약이 공포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금도 1910년 조약의 자리매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1910년 조약의 효력이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두 개의 세부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1910년 조약의 효력 자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효력과 관련된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일본국(이하 ‘일본’) 사이의 합의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1910년 조약이 역사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효인가 아니면 무효인가’라는 문제이며, 후자는 ‘1910년 조약의

1) 이 글은 필자의 글 「1910年韓日條約に関する法史學的の再検討」(『季刊 戦争責任研究』2010年春季号)를 요약·재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효력에 관해 한국과 일본은 어떤 합의를 하였는가 라는 문제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의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자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2010년은 이러한 진전된 논의와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1910년 조약을 보다 명확하게 자리 매김하는 의미있는 시간의 매듭이 되어야 할 터이다.

II. 1910년 조약의 효력

1. 1910년 조약에 관한 역사적 사실 : 1990년대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졌다. 우선, 1910년 조약의 논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1905년 조약과 관련해서, ① 그 체결 과정에서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측의 초안을 광무제(고종황제)에게 보이면서 “이 안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제국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므로 금일 중요한 것은 단지 폐하의 결심 여하이다. 이것을 승낙하든지 거부하든지 마음대로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제국 정부는 이미 결심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컨대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층 불이익한 결과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는 사실, ② 조약문에 찍힌 대한제국 외부의 관인은 일본측이 탈취한 것이었다는 사실, ③ 조약 체결 후에 광무제가 여러 외국에 대해 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1910년 조약과 관련해서도, ① 1910년 조약 체결 당시의 한국통감으로서 조약문에 서명한 테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군대, 경찰의 위력과 끊임없는 경비가 간접적으로 다대한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 역시 다룰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라고 인정한 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한 위하가 가해졌다는 사실, ② 융희제(순종황제)가 “지난 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強隣)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라는 유조(遺詔)를 남겼다는 사실, ③ 조약의 비준서에 해당하는 융희제의 칙유에 서명이 빠져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2.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기준 : 다음으로 그간의 논의를 통해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법에 관한 지식도 풍부해지게 되었다. 논의는, 어떤 국제법적 문제에 적용할 법은 그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국제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시제법(時際法)의 원칙을 전제로, 주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당시의 국제법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작업은, 1900년대 초의 국제사회에는 그 문제에 관한 성문국제법이 없었다는 사정 때문에, 당시의 국제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에서 관습국제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우선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유효이지만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라는 것이 당시의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이 지지한 관습국제법으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조약을 무효로 하는 강박의 내용에 관한 이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한편에서는, 조약을 무효로 만드는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은, 사실상 국가대표자에 대해 과거의 과오를 폭로하겠거나, 문자 그대로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극적인 사태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모두 유효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이었다고 하는 이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그러한 ‘극적인’ 사태가 입증되지 않는 한 1910년 조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각각 정당화의 이유가 다르고,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폭력이나 강박의 존재의 증명이 중요하며, 국가에 대한 강제의 경우에는 무력과 협박을 하는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이었다고 하는 이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일제가 대한제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을 주장할 여지는 없었던 데 대해, 대한제국의 대표자에 대한 폭력이나 강박은 있었기 때문에, 1910년 조약을 포함한 한일간 조약들은 무효가 된다.

III.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

1. 1965년의 ‘합의’ : 한국과 일본은 1965년의 「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조문에 대해 해석은 둘로 나뉘었다. 한국 정부는, ‘null and void’는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already’는 소급하여 무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already null and void’는 조약이 원래는 유효했으나, 한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

“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종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인민들에 대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했다.

”

월 15일에 무효가 되어, 1965년의 조약체결 시점에서는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본조약」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 일본국이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役務)”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제2조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 「협정」 제1조와 제2조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양자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양자 사이에 전혀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요컨대,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① 1910년 조약은 애당초 무효였다, ②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불법강점이었다, ③ 그래서 1965년에 그와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①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였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무효가 되었다, ②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합법이었다, ③ 그래서 1965년에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준 것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2. 1995년 이후의 변화 : 1995년 이후 1910년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해석에 주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다.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종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인민들에 대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표명” 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찌(小淵惠三) 공동선언을 통해서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965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면, 이것이 적지 않은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도 1910년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법적 무책임의 원칙’은 계속 이어갔다. 요컨대 ‘유효정당론’에서 ‘유효부당론’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IV. 과제

1. ‘법’을 넘어서?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유효론과 무효론이 대립해왔다. 이 대립은 1910년 조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1965년의 한일 간 합의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로서는 해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넘어서자는 주장이 나온다. 제국주의 시대의 힘의 논리가 녹아 있는 ‘법’에 지금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학자 개인의 학설이라는 형태로 존재한 법은 불명확하다. 무엇보다 법적 공방의 형태를 띤 그 대립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 줄 현실의 법정이 없다. 그래서 ‘유효부당론’자들은 ‘법’을 벗어던지고, “식민지주의의 해체”라는 보다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한다.

하지만 대립의 출발점이 ‘법’이다. 애당초 한반도 인민들이 요구한 것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여 억압하고 약탈했으니 그에 대해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합법이었으니까 책임질 것이 없다’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그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게다가 불법이었다’라고 거듭 추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합법’이라는 좁은 주장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주의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의 해결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대립이 ‘법’으로부터 출발한 때문인 것이다.

또한 대립의 현상으로부터도 ‘법’을 떼어낼 수 없다. 1982년 이래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의 뿌리에는 바로 ‘법’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자유주의사관’ 론자들에 의한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다름 아니라 ‘한국병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터잡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을 넘어서는 논의로는 대립의 의미있는 해소를 가져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1990년대 이래의 진전과 변화는 실은 ‘법’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보다 진전된 ‘법’에 관한 논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2. 새로운 ‘법적 틀’의 구축 : ‘법’과 연관된 하나의 해소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 국제법을 전제로 한 법 논쟁’이라는 법적 틀 자체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하는 것, 다시 말해, 제국주의 국제법의 틀 대신에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고 관철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의 선주민족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운동, 나찌즘의 피해자에 대한 독일의 보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의 보상, 그리고 대일과거청산 소송 운동을 비롯한 한일간 과거청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 최근에 전개된 일련의 ‘법적’ 노력은 그러한 새로운 ‘법적 틀’을 향한 커다란 흐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반인종차별 국제회의에서는 마침내 “식민지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든 식민지주의는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라고 선언되었다.

3. 법과 역사의 상호심화 : 하지만,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은 아직은 형성 중에 있는 미완의 과제이다. 그래서, ‘법’과 연관된 보다 즉각적인 해소책으로서, 무엇이 ‘법’ 인지를 ‘확인’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 할 수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1990년대 이래의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1900년대 초에 ‘복수의 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 ‘복수의 법’ 사이의 우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지금 190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효력이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에 관해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복수의 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된다. 강박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유효론자도 무효론자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유효론자는 그 ‘복수의 법’ 중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유효를 주장하고 있고, 무효론자는 다른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선택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선택이다. 일본 정부의 최초의 선택인 ‘유효정당론’은, 요컨대 ‘합법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해야 할,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유효부당론’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 ‘유효부당론’이라는 것은, 요컨대 ‘합법이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매우 웅색한 자가당착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본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나라이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형색이 되어버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늑대의 법’인 제국주의 국제법의 시대에도 존재했던 ‘양들의 법’이 그것이다. 당시에 우열을 확인할 수 없는 ‘복수의 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시제법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늑대의 법’을 버리고 ‘양들의 법’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법적’인 장애도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선택은, ‘늑대의 법’이 떠받히고 있던 제국주의 시대와의 진정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며, 바로 그 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이다.

V. 맺음말

1910년 조약의 효력의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인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한일관계의 토대인 1965년 조약의 애매성이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1910년 조약의 효력, 그리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한일간의 진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그래서 1965년의 애매성을 극복하고 한일관계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 일본정부가 1910년 조약 공포로부터 100년이 되는 올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넘어서, 1910년 조약과 그것에 기초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는 그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동녕의 삶과 정신



이현희 | 성신여대 명예교수

애국사상과 국내에서의 구국활동

전통적인 군주제 정치를 극복, 청산하고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건인차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자 중의 한분이 석오 이동녕(李東寧:1869-1940)이다. 그는 명문 연안이씨 가문에서 성장한 개신유학자이며 개화혁신사상이었다. 또한 민족독립운동가인 동시에 언론인, 교육가이며 혁명투사로 해외에서 70년 한평생을 일관하였다. 그 중 그의 명성과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민주정통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면서 그 27년사중 20여년을 한결같이 임시정부를 통한 광복정책을 실시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임시정부의 터줏대감으로 그 기층을 확대하여 민주공화정부를 법통성있게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이끌어가면서 일제침략에 항거하고 국내외를 통할하였던 것이다.

영해군수를 지낸 연안이씨 이병옥과 광주안씨의 두 아들중 장남으로 충남 천안군 목천에서 출생한 석오는 향리 서당에서 한학을 익혔다. 10세때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조부 이석구 문하에 가서 수학하였다. 그뒤 1892년 24세가 되던 해에 응제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진출의 길을 얻게 되었고, 검손과 격려의 의미로 호를 석오라 칭하였다. 다음해에는 부친을 따라 원산으로 가서 그 선교장의 육영사업에 조력하였다. 1894년 26세가 된 그는 김정선과 결

혼하여 아버지가 된 석오는 1896년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이 조직한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어서 간사원으로 활약하며 이승만 등과 개화민권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선배 동료와 함께 국가의 비정을 규탄 성토했으며 외국으로 넘어가는 각종 국가의 중요 이권을 고수하면서 자체적인 개발을 강조하였다. 이듬해부터 독립협회 회원들은 투옥을 불사하고 다수 가담하면서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민권 민생투쟁을 전개하였던 만민공동회운동에 참여, 우남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고종을 황제로 격상케 한 대한제국의 수립에 있어서 기여하였고, 부국강병을 위한 각종 상소문을 만들다가 동지 이승만과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이때 민족대표인 옥과 이종일을 만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는데, 옥과는 1898년 8월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으로 있으면서 민권, 국권회복운동단체인 대한제국민력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던 지도자중의 한분이었다. 석오는 옥과의 권유로 제국신문의 논설위원으로 다수의 사설을 기고하였는데, 그중에는 ‘민족자강의 방도’ ‘위국의 방도’ 등 수십편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석오는 옥파로부터 민족의식과 여성개화, 근대화 등에 대한 사상적인 감화를 받았다.

1900년대 들어 30대가 된 석오는 보다 의욕적으로 애국활동을 전개하여 갔다. 그는 이상재, 전덕기 등과 함께 YMCA운동을 전개하면서 평등, 평화, 박애, 자비, 자주, 자립정신을 터득하였다. 그는 상동교회 안의 청년학원을 설립하여 내외의 청년을 육성하였는데, 이 학원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강천명이 보낸 5원을 기초로 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동시에 석오는 이곳에 청년학우회를 조직, 총무로 학원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국내외에서의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

1905년 을사늑약이 일제 침략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는 동지들과 손잡고 결사대를 조직한 뒤 매국노의 응징과 침략자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일제의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규탄하였다. 석오의 독립사상의 태동과 운동은 이러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정립하는 기반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듬해인 1906년 그는 북간도 용정에 망명하여 이상설 등과 함께 최초의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한인교포교육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동지 이상설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어 가자 그도 여준 등에게 학교를 맡기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동년 말경 석오는 양기탁, 이종일, 이회영, 이동휘, 이갑, 안창호, 전덕기, 김구 등 20여명과 함께 창건위원으로 서울에서 비밀항일결사인 신민



▲ 석오 이동녕 선생

회를 주도적으로 결성 조직하였다. 신민회가 결성되기 1년전 석오는 이회영 등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각종 항일투쟁을 볼 때 곧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니 국내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서 보다 원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꾀하여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건설을 통한 무장독립전쟁론을 폈다. 이후 석오는 신민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책의 수립과 방략을 실시하는 총서기하는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또 청년학우회, 한성연회의 총무로 조병학회장과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니 이후 1945년까지 35년간 항일투쟁은 국내외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석오는 원산에 머물고 있는 부모에게 하직서를 띄우고 가산을 정리하여 그해 겨울 서간도 요녕성 유하현 삼원보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지들과 우리 교민들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는 뒤에 서로군정서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를 토대로 독립군양성에 힘써온 석오는 우당 이회영과 그의 형 이석영 등의 적극적인 지원, 열망에 따라 뒷날 신흥무관학교로 성장 확대되는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맥을 연결한 신흥강습소는 곤경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회영이 원세개와의 원만한 교섭으로 빈 창고를 빌어 이 무관학교를 개설할 수 있었다. 석오는 그 소장으로, 또 군사교관에다가 사환까지도 겸하면서 인재를 육성하여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3,500여명의 인재를 육성 실전에 배출 파견하였다. 석오는 이

학교 3기생으로 졸업한 장남 의직을 잃었으나 조금도 동요치 않고 선공후사적 공직윤리의식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그는 경학사 이후 부민단, 권업단을 조직하고 1914년 이상설 등과 같이 러시아에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 최초의 민주정부를 구성했던 경험을 하였다. 또한 <대동신문>과 <해조신문>을 발행, 보급하였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민족사상의 뿌리인 단군의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을 봉경하고 대중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18년 말 대한독립선언서 기초서명 39명중의 일인으로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방면에서 동지들과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석오는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뒤 비교적 자유스럽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상해로 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석오가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 한인동포는 대략 2천명 내외였으며, 그 가운데 신규식, 김철, 현순, 조소앙, 이시영, 신익희, 남형우, 한기악, 문일평, 신채호, 이회영, 조완구, 조성환 등 30여명의 민족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신규식이 마련한 상해 프랑스조계 애인리 숙소에서 석오는 무엇보다도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세계 혁명 이후에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임시정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제도적으로 빼앗긴 조국을 우리손으로 직접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미 1914년 러시아에서 이상설 등과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국내외의 혁명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민간정부의 수립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들과 프랑스 조계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 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급선무인 입법기관인 의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임시의정원이라 하여 1919년 4월 10일, 11일 김신부로에서 10개조에 달하는 임시헌장 10조를 동의장 석오의 지도로 이시영, 조소앙, 남형우, 신익희 등이 연구 검토해서 제정한 뒤 정리하였다. 그리고나서 4월 13일 오전 마침내 석오의 떨리는 음성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어 헌법외에 전문, 헌장, 서고문, 정강, 강령등을 차례로 정하고 정부의 부서와 각료를 선포하였다. 이때 석오는 초대 임시의정원의 의장으로 추대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하였고, 이후 임시정부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체제의 민간정통정부로 수립되어 중단없는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그리고 정부의 수반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의 형식을 가졌으며 각료는 총장제로 안창호, 이시영, 최재형, 이동휘, 문창범, 조소앙 등이 선임되었다. 석오는 이승만이 아직 미국에 있었으므로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실질

그는 내무총장으로 몇 번에 걸쳐 국내동포에게 보내는 포고문을 통해 일본으로의 납세거절, 태업권유, 관리의 퇴직, 교사 학생의 민족교육 촉구, 상인의 철시와 비협조, 방해 등을 강력히 권유한 내용인 것이었다. 이동휘가 소련군자금의 유출문제 등으로 국무총리를 사임하자 석오는 그 후임으로 대리업무를 맡아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였다.

적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하여 갔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에는 임정이 여러개 국내외에 수립되거나 될 단계에 있었는데, 내실있는 규격이 구비된 것은 상해 임시정부 외에 노령 대한국민의회와 서울의 한성임시정부 등 3개처였다. 이에 석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임시정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앞의 3개처의 임시정부 대표를 모이게 하여 타협한 끝에 동년 9월 제1차 개헌을 통해 단일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의정원 의장직을 손정도 등에게 이어주고 단일통합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자인 내무총장으로 일을 전담하였다.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가 상해에 부재하거나 알력, 갈등으로 국무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므로 내무총장인 석오가 국정을 주관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는 내무총장으로 몇 번에 걸쳐 국내동포에게 보내는 포고문을 통해 일본으로의 납세거절, 태업권유, 관리의 퇴직, 교사 학생의 민족교육 촉구, 상인의 철시와 비협조, 방해 등을 강력히 권유한 내용인 것이었다. 이동휘가 소련군자금의 유출문제 등으로 국무총리를 사임하자 석오는 그 후임으로 대리업무를 맡아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였다.

또한 안창호, 박은식 등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6개월간이나 끌면서 창조파 개조파의 분란이 일고 있을 때 이를 김구와 같이 해산 정리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 고수에 심혈을倾注하였다. 임시정부를 더욱 공고히 발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는 시사책진회를 이시영등과 조직하였으며 한국노병회 등도 김구, 이유필과 함께 결성, 임정을 효율적으로 꾸려 나갔다. 그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사임한 뒤를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며 국무령 국무위원회의 주석 등 지도요인으로 임시정부의 위기를 지혜롭게 구했고, 내정교통과 외교군사, 문화교육, 재정사법 업무를 임정의 광복정책으로 조절하면서 과감히 수렴 주도적 차원에서 집행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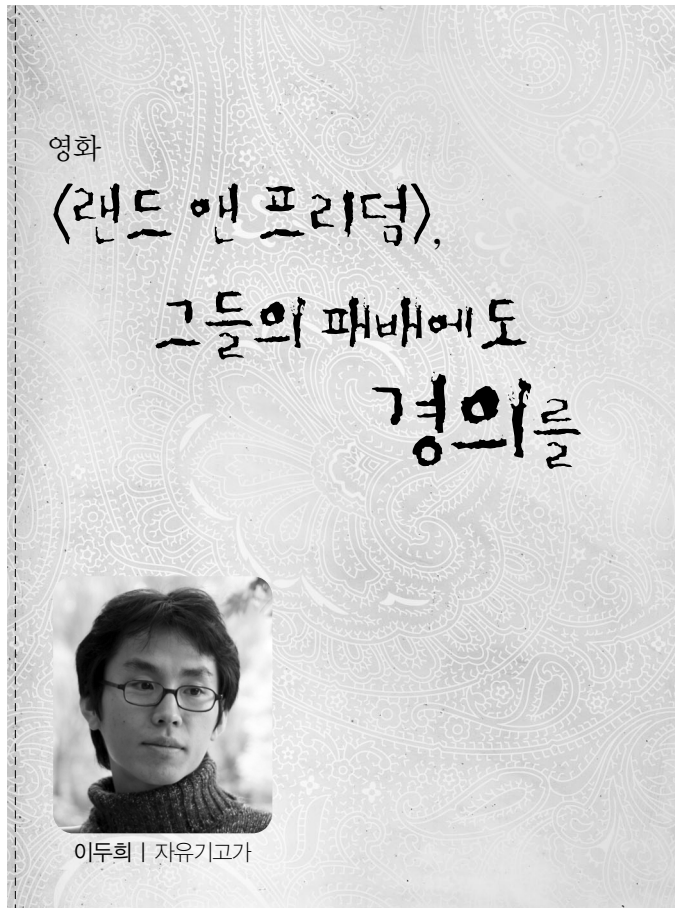
이렇게 60대의 석오는 전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였고, 행정부의 수반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국정을 처리해 나갔다. 4차의 개헌을 주도, 실시한 그는 이당치국의 이념하에 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을 김구 등과 조직, 이사장으로 운영해 나갔다.



▲ 가흥에서 임정 국무위원들 (앞줄 가운데가 이동녕 선생)

이에 백범은 <백범일지>에서 “석오가 나를 밀어주어 은고를 입었고, 공적을 뒤로하고 인화단결에 앞장선 큰 인물이었다.”라고 추모하였고, 이어 “석오선생은 재덕이 출중하나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자기는 타의 부족을 칭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했음이 미덕이라”고 석오의 겸손과 너그러움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기악도 “자모와 같고 은근하고 심중한 태도, 부지 중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광채있는 안광, 우렁찬 음성, 강직하고 온화한 성격에다가 통어력이 강했다”고 그를 추억하였다.

하지만 한국국민당의 당수로 대한광복진선을 결성, 한민족의 진로를 제시하다가 1940년 기강에서 72세로 장서하였다. 석오의 장례는 기강에서 국장으로 거행되었으며 광복 후 백범에 의해 서울 효창원에 모셔져 안장되었다. 석오는 꿈꾸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삶과 애국정신은 민족의 대동통일과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하는데 근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겠다. (9)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은 1936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맞서 대항한 스페인 공화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자원한 의용군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1995년 제작되어 같은 해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켄 로치 감독의 첫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소위 좌파의 감수성을 가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까닭은 비록 패배하고 말았던 그들의 싸움에서 쉽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역사적 진실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비극적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1995년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랜드 앤 프리덤>

영화 이야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된 한 소녀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시작한다. 과거 당시 1936년, 영국인 노동자 데이비드 카는 내전 중이었던 스페인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전쟁은 이미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구도로 바뀌고 있었고, 많은 유럽의 노동자들이 파시즘 반정부군과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자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로부터 국경을 건너 스페인으로 들어온 데이비드는 기차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서 스페인의 마스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POUM) 당원들과 함께 전선으로 향한다. 비록 전장에서의 열악한 생활과 간헐적이기만한 전투는 그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평등하게 함께 싸우는 민중의 군대에서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혁명군으로서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리라는 희망을 가지게끔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의 정치적 지형은 훨씬 복잡하게 바뀌고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스페인 공화국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군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다 자발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이었던 사회주의 노선의



▲ 새로운 스페인을 만든다는 희망을 갖게 한 혁명군의 전투

의용군들은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부상으로 휴가를 나온 데이비드가 보았던 1937년 5월 바르셀로나 전화교환국을 둘러싼 시가전은 바로 이 상황이 이미 내분으로까지 발전한 정점이었다. 정치적 노선으로 갈등하던 데이비드는 결국 다시 동지들이 있는 전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결국 의용군들은 한때 같은 편이었던 정부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들의 전장을 빼앗긴다.

영화 이후의 역사는 그 후 2년이 채 되지 못하여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함락되며 정부군이 패배했고, 군부 쿠데타가 승리하여 스페인에는 수십 년 동안의 프랑코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랜드 앤 프리덤>의 줄거리는 자칫 흥미를 잃기도 쉬운 스페인 내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필요로 한다. 과연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유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세계는 경제공황(1929)에 당황하는 중에서도 이미 새로운 변화들을 맞고 있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의 독일 공화국이 실패하고 나치가 정권을 장악(1933)하며 파시스트 세력을 결집해가고 있었고, 자신들의 혁명을 완수한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스탈린이 정적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숙청해가며 일국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운동과 함께 성장한 민중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급의식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이러한 대내외적 불안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 기대하고 있었던 때, 1936년 7월 스페인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 정부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 장군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스페인은 1월 선거를 통해 공화파와 좌파간의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내 파시즘 위협에 대항하는

스페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싸움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이중적 성격이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군부 파시즘 세력과 맞서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권력 장악을 이루어내려는 혁명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스페인 내전 혹은 스페인 혁명에 대해 지식인들은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조지 오웰, 헤밍웨이, 앙드레 말로 등을 그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전쟁 초기의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당장이라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해방구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그 곳에서는 새로운 '평등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소설 <카탈로니아 찬가> (1938)는 영국인으로서 직접 참전하였던 작가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다큐멘터리 소설로서 영화 <랜드 앤 프리덤>에 대한 주석서로서도 같이



▲ 의용군이 쿠데타군을 쫓아내고 해방시킨 마을에서 생산에 대해 토론을 한다.



비록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해방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이란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자의식 따위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경험과 희열을 통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각인되는 것이리라. 승리와 마찬가지로 패배에도 항구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을 경의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읽어 봐도 좋을 것이다.

물론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쓰여진 조지 오웰의 소설이 외국인의 호기심 많고 때로는 익살스러우면서도 통렬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면, 후에 만들어진 켄 로치 감독의 영화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한 혁명 속에서 사라져간 노병들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의 다른 영화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역시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과만으로는 소급되지 않는 역사의 흐름과 질곡의 모든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이 짧은 상영시간 동안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전개들을 다루면서도 빠트리지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의용군이 쿠데타군을 쫓아내고 해방시킨 마을에서 옛지주의 집에 농부들과 의용군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그들은 토지의 재분배와 생산의 집단화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논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혁명이라도 논쟁의 과정이 결론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해방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이란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자의식 따위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경험과 희열을 통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각인되는 것이리라. 승리와 마찬가지로 패배에도 항구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을 경의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화의 곳곳 잠시나마 스쳐가는 그 서정적 풍경에서 역사와 함께 녹아든 스페인 민중의 삶을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역시 참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헤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1940)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영화들로는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별집의 정령>(1973)이나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2006) 등에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일종의 후일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독립정신

홍용희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수수한 옷차림을 한 게 니콜라이와 진 엘비라 부부를 한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위치한 그의 별장에서 만났다. 먼 이국땅에서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고 있는 그와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며 진행하였다. 그는 능숙하게 한국어를 말하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유머와 재치, 재미나게 행동묘사를 해주어서 편안한 인터뷰가 되었다.

게 니콜라이는 1951년 생으로 북우 계봉우 선생의 차남인 계정림의 4남중 막내로 태어났다. 8세 때까지 할아버지인 계봉우와 한집에서 살았다. 그는 15세부터 역도를 시작하였고, 1995년까지 18년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포츠를 강의하였다. 그 후 2001년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독립유공자후손회의 회장으로 현재까지 재임중이다.



- 계봉우 할아버지에 대하여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

제가 8세때까지 할아버지와 한집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이지만 계태립 큰아버지가 1949년에 감기에 걸려서 3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셨지요. 할아버지는 구들이 있는 부엌에서 흰옷을 입고 항상 글을 쓰고 계셨어요. 밥상은 할머니가 들여다 주셨고, 혼자서 식사를 하셨죠. 집안 형편은 명절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적은 양이지만 항상 술을 밥상에 올려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계신방에는 어린애들은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와 대화는 많이 못해봤어요.

- 계봉우는 스탈린 시기에 숙청을 피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고려공산당 상해파인 이동휘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동휘는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였지만, 계봉우는 실력양성을 중요시하였어요. 그리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와 파벌투쟁 중 할아버지는 투옥되었는데, 이후부터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어요. 이때 교육활동을 많이 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어 문법 등 학생교재를 만드셨죠. 이 때문에 다른 고려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숙청시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봐요.

- 여담으로 홍범도 장군의 카자흐스탄 생활은 어떠하셨나요?

계봉우와 홍범도는 크질오르다에서 몇 번 만났어요. 하지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홍범도 장군은 자식과 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고려극장 수위를 하며 어렵게 살았죠.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자 많은 고려인들이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드렸죠.

- 학계에서는 고려인들이 1937년 이주 당했을때 우슈토베에 먼저 도착한 후 크질오르다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도 크질오르다에 먼저 도착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학계에 알려진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려인들이 이주되는 길은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카자린스크-크질오르다-타쉬켄트-알마티를 거쳐서 왔어요. 우슈토베는 이후에 그 지방으로 많이 옮겨갔죠. 생각해 보세요. 고려극장과 고려신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슈토베를 지나는 기차선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른 국가학자들의 논문을 더 보고, 나이든 어른들의 증언을 듣는다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거예요. 역사는 바르게 알아야죠.

- 이주 후 고려인의 생활은 어땠나요?

고려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겨우 음식문화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조차 곧 잃어버릴 위기에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저희 할머니처럼 러시아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살기위해 러시아화(化)를 하면서 대부분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소련 정부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법, 예를 들면 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두는데 해당

선생님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고려인들은 무서워서 러시아어를 배울 수 밖에 없었어요. 살기위해 하루빨리 러시아화(化)를 할 수 밖에 없었죠. 고려인 친구들과도 언제나 러시아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릴때에는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고,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이러면서 다음세대 고려인들은 말과 그에 따르는 문화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 제가 만난 제 또래의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거의 모르더라고요.

카작인들은 학교나 밖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지만, 집안에서는 카작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보존되었어요. 그러나 고려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 고려인들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어를 배워야해요. 현재 잘못된 상황이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과거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고려인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몰라요. 과거 소련시대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대학교, 한국교육원, 3000명의 한국교민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서 카자흐스탄으로 오는 한국사람이 고려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한다면, 한국인과 고려인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인은 러시아어를,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신문을 발행하면 고려인들이 점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배워야하냐면, 다른 민족과 교류를

하게 될 때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고려인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인을 만난다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예요.

- 한국어가 유창하신에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어렸을때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못 배웠어요. 한국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알미티 한국교육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45분씩 배웠어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주로 문법을 가르쳐요. 한국어 문법은 매우 어려워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수업진행방식이 바뀌어야한다고 봐요.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보세요. 말을 먼저 배우지 문법을 먼저 배우지는 않아요. 한국교육원에서 한국말을 배운 학생으로 수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독립유공자후손회의 성립과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알마티에 살고 있는 유공자 후손들을 박일 교수가 모았어요. 그 후로 1998년에 설립하였죠. 초대 회장은 정추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2001년부터 제가 맡게 되었죠. 제가 지원한건 아니고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제가 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테니스 개인교습을 하고 있을 때라 시간이 그나마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어려운 직을 맡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어요.

제가 회장이 되고나서 처음 한 것은 화가를 초빙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예요.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으로 7장을 그렸어요. 최재형, 이동휘, 계봉우, 홍범도, 민궁호, 황운정, 최봉설 초상화를 그려서 한국교육원 도서관가는 복도에 배치했어요.

다음에 한 것은 달력을 만들었어요. 3000장 정도 만들어서 대학교 등 많은 곳에 배포를 했어요.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때에 사람들이 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고려인들의 비율이 많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편지 3000통을 고려인에게만 보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사에만 고려인들을 모으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고려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절보다 역사와 언어를 먼저 찾는 것이예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몰라요. 어떻게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신문을 만들어서 모든 고려인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현재 고려일보가 있지만 발행부수는 500부에 불과해요. 더 많은 사람이 한국어로 쓰인 신문을 보아야 해요. 지금

고려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단지 사람에 불과해요.

- 올해 목표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크게는 3.1절 행사와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행사가 있어요. 곧 다가오는 3.1절 행사는 보훈

처와 협의 중이에요.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데 보훈처로부터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순국선열의 날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였어요. 한국교육원 강당은 500석을 수용하는 곳인데도 그보다 많이 왔어요. 저는 더



많은 고려인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따라요. 보훈처에서 협력을 해준다면 다른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3.1절과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하고 싶어요.

다음은 책을 출판하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출판한 2권은 많은 고려인이 독립유공자를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생각을 쓰고 싶어요. 지금 저는 고려인들의 역사, 언어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있어요. 이번 책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바이런”의 말처럼 먼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 일 하는게 행복합니다.”라고 게 니콜라이 회장님의 말씀이 귀에 떠나지 않는다.

에서는 앞으로 우리 고려인들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 한국정부나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좀 전에 말했지만 고려인들에게 신문을 발행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고려인에게 배포해야죠. 눈앞이 아닌 적어도 5년에서 10년 뒤인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해요. 이렇게 된다면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조금 이나마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위인은 모르지만 서양의 유명한 위인은 많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관한 정보가 없는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에 관한 책이 많이 필요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모로 한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죠.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때 까지 오랜 시간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민족에 대한 열정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 이상했다. 대한민국에서 3.1절과 순국선열의 날은 어떤가. 직장인들에겐 단지 쉬는 날 일뿐이고, 스펙의 노예가 된 대학생들에게는 잊혀진 날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잊은 한국인들, 그들의 국가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을 잊지 않은 고려인들. 먼 훗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과 고려인들의 의식은 어떻게 될까?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바이런”의 말처럼 먼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 일 하는게 행복합니다.”라고 게 니콜라이 회장님의 말씀이 귀에 떠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게 니콜라이, 진 엘비라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 필자 홍용희군은 독립정신 답사단원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교환학생으로 러시아지역의 독립운동을 공부중에 있다.

2010년 친일청산의 문제



▲ 친일파 청산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1. 1910년과 2010년

2010년은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을 친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신들이 우익이라 일컫는 세력이 말하는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레드 콤플렉스'에 걸려 지금도 '친일'보다는 '빨갱이'를 더 '나쁜 놈'으로 규정지으며 친일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단적인 예가 작년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은 처벌의 목적이 아닌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우익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발간 당시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우익세력은 '친일인명사전'에 대항하여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일 행위에 대해 변명과 편가르기를 하는 세력을 바라보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비록 나라는 되찾았지만 한국국적의 한국말을 사용하는 일본인들이 몇몇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류동연
명지대학교 사학과
現 임정기념사업회 간사



▲ 발간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친일인명사전

II. 친일파 청산의 좌절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 왜곡의 첫 출발은 친일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친일파 숙청 문제는 해방 이후 역사적 과제였고, 신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적 요구였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미군정은 반소반공 기지 건설이라는 대한정책을 수용하는 세력을 활용하며, 미군정의 정책에 위배되면 어떤 세력이든 배제했다. 미군정은 사회 각 영역에 친일파를 등용했고, 이 시기 친일파들은 국가권력의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이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남한에서 증폭되는 과정을 통해 조직화되었으며 정부수립 당시까지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헌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친일파 숙청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방해공작에 직면했다. 이렇게 친일파 숙청 방해공작이 공개적으로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이 남한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는데, 1948년~50년 한국사회는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었고, 한국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이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이와 같이 친일파비호세력은 중앙의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지방의 지역유지들이 총망라되어, 한국사회 전역은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고 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들은 친일파비호세력으로 결합되었다.

한국사회가 친일세력에 의해 장악된 결과 남한사회는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정치·사회사상도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숙청을 요구하는 세력을 공산주의자, 심지어 남로당 프락치로 연결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민특위에서 체포된 상당수의 친일파들은 사회 각 분야에 재진출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보수정당의 뿌리가 되었다. 경제계의 주역도 역시 부와 권력을 위해 일제에 결탁한 인물들이 이승만 정권에 기생해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사회단체에도 일제시기 밀정이나 경찰 출신이 참여하거나 직접 조직하여 이승만 정권에 협조하였다. 이렇게 태동한 사회단체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보다 극단적 보수성을 기본성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친일파들은 남한사회 각 분야의 첫 출발에서 일제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사회를 다시 장악한 친일 세력 앞에서 친일 청산이라는 구호는 어디에서도 외쳐지지 못했으며, 설령 주장된다 하더라도 묵살되거나 되려 공격받게 되었다.

Ⅲ.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광복 직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도리어 친일파를 등용한 정권은 '민족 공동체' 보다는 외세 의존형, 정치적으로는 독재, 경제적으로는 독점,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한 권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뿌리 위에서는 어떤 정권도 민족이 염원하는 새싹은 움틀 수 없을 것이다. 친일파 청산 없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역시 허울뿐이며, 민중 생존권도 껍데기 구호요, 남북 화해와 통일도 구호일 따름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일본의 극우 보수화를 견제함과 동시에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연대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과거사 청산이 전제되어야 일본의 극우화를 견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동아시아는 평화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 청산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Ⅳ. 친일파 청산과 남은 과제

한국의 현대사는 일탈된 정치형태로 일관하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족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세력이었고 다른 쪽은 지주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었으며, 더욱이

친일세력과 그 아류를 주요기반의 하나로 출발한 원죄를 안고 있었다. 기득권세력이 오랜 기간 정치권력을 분점 해왔다는 사실에서 역사청산이 지연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제야말로 상식에 기초한 과거청산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은 좌·우익, 남·북한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굳게 결합하여 한국사회를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파 개개인의 처벌문제가 아니라,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해 구축된 왜곡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문제이고,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었던 사회구조적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친일파 조사 작업을 위해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역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리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친일조사에 대한 전 국민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친일파 숙청문제가 한국사회에 대한 개혁·과거사에 대한 객관적 반성을 기초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일 경우 전 민족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사 청산은 결코 보복이나 단죄 차원에서 추진되지 말아야한다. 오히려 진실규명의 토대 위에 반성과 화해를 추구함을 목표로 해야한다.

V. 마치며

일제 침략을 전후하여 권력의 측근에서 온갖 부정한 특권을 누렸던 세력들은 거의 친일파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친일파들은 서로의 세력을 공고히 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해나갔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불러왔다. 친일파 문제는 이런 점에서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과 내일의 민족적 이정표이다.

친일파 청산은 해방 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며,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처벌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과거사 청산은 진실 규명의 토대 위에 반성과 화해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사 청산에 머무르지 말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청산 작업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평화 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독립정신 1호부터 50호까지

◆ 창간호(2004년 12월)

회장 취임사
대통령 치사
국회의장 축사
열린우리당위원장 축사
창립취지문
헌시_ 조국에 돌아온 대한민국 /부회장 장병화
창립경과보고
시평1_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시평2_ 미국과의 진정한 대등관계를 수립하라
특별기고_ 임시정부 기념사업 /국가편찬위원장 이만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재적 의미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임원
사업계획(안)
수입지출예산(안)
시사만평중계
이사회개최

◆ 2호(2005년 1월)

신년사
시론_ 일본의 이중성
특집_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친일규명'이 필요한 까닭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조문기
친일청산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사, 국회의원 김원웅
과거청산은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한민족 미래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이사, 국회의원 고진화
유형해방 60주년 축제와 광복 60주년 /이사, 언론인 주성일
시사만평중계
초대기고_ 제2기 부사장권시대 Corea 민족의 운명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김낙중
회원동정

◆ 3호(2005년 2월)

권두언_ 한일합정 재협상 요구 /회장 김자동
한일합정은 민족감정에 맞다 /역사학자 이이화
'둘레랑스' 정신으로 희망의 정치를 가꾸자 /이사, 국회 의원 노응래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를 다녀와서 /이사, 국회의원 원희룡
친일 '청산' 인가 친일 '면제' 인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정운현
'대한민국국가법안'의 취지 /국회의원 홍미영
표지인물소개_ 예관 신규식 선생 /외대 교수 반병률
인인일보에 실린 백범 김구
시사만평중계
본회 · 회원 동정

◆ 4호(2005년 4월)

권두언_ 광복 60주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 /김자동
시론_ 일제 식민지배, 친일, 그리고 국우 /박노승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한국 민주화의 개척자 석오 이 동생 선생 /이현희
논단_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법 /최용규
86돌 3·1절을 맞으며 /심재권
나라를 끝내는 가문의 영광 /김학민
세계의 임시정부_1_ 상해에서 시작된 독립의 여명 (대한민국임시정부)

4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5호(2005년 5월)

권두언_ 망각을 권하는 사회,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들... /문학진
시론_ 일제 찬양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라 /빙인섭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박은식의 독립사상과 국론론 /박갑순
논단_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언 /권영길
'참된 보수'를 아십니까 /한승규
기고_ 중경 임정기념관 홈페이지 제작을... /이상기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뒷이야기 1_ 그리운 애국지사 /우승규
역사의 진실 찾기 1_ 어느 낯익은 사진에 관한 단상 /강호백
5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6호(2005년 6월)

권두언_ '사법살인' <민족일보>사건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내 아내와 자식을 왜놈 종이 되게 할 수 없다-석주 이상룡 /박 도
논단_ 일본우익의 망언 · 망동을 읽는 법 /신복룡
광복 60주년 '한국판 드굴'은 꿈인가 /주성일
4·30 재-보선 결과를 보고 /서순일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2_ 새강개길러 똥 /우승규
6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 행사 안내

◆ 7호(2005년 7월)

권두언_ 살아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김자동
시론_ 합구필분(合久必分), 분구필합(分久必合) /곽태원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민족 독립운동의 거목, 여운형 /장병준
논단_ 6월에 돌아보는 보훈복지제도 /이충렬
특별기획_ 일제강점기민족차별행위 옹호방지법 입법공청회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3_ 망국병적 지방색 /우승규
발굴자료_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귀환 작전 /김형민
7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8호(2005년 8월)

권두언_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과제 /김자동
시론_ 개헌에 관한 의견 /편집부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백범과 임시정부 27년 고난의 행군 /김삼웅
논단_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을 바꿔라 /이봉원
임시정부의 은인, 조지 소오 찾기 /김학민
발굴자료_ <신화일보>에 나타난 한국 임시정부 /편집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할버트 박사는 누구인가 /김동진
알려지지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4_ 東農翁의 救國雄征 /우승규
광복 60주년 기념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단 출범

8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9호(2005년 9월)

권두언_ 국민을 속이는 '민영화'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처리석의 삶과 독립운동 /장석홍
논단_ 대한민국 헌법과 임시정부 /김삼웅
환갑이 넘어도 정당한 일본식 용어 /강호백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표명렬
9월의 임시정부 소사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_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 종합 평가 /김위현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 준비에서 마치고까지 /빙인섭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자취를 다녀와서 /이동철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 일지 /한지현
기행문 /강민구(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1학년)

◆ 10호(2005년 10월)

권두언_ 한 · 일 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청사 조성환 선생 /편집부
논단_ 밥 먹듯, 꿈꾸듯, 그리하여 마침내 숨 쉬듯 /윤한택
발굴자료_ <신화일보>에 나타난 한국 임시정부Ⅱ /편집부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5_ 趙甲移乙의 左傾 /우승규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Ⅱ_ 임시정부유적지 답사기 /김성희(원광대학교 치의학과 1학년)
대담_ 임시정부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편집부
10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11호(2005년 11월)

권두언_ 만경재 앞 풍경 /김학민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와 활동 /이명하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김성문_ 세미유지컬 '장강일기'를 보고 /조경아
기행문_ 답사과정에서의 고민과 성장에 대한 메모들 /이연지
11월의 임시정부 소사
기념사업회 소식

◆ 12호(2005년 12월)

권두언_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김규식: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바친 삶 /이준식
특별기고_ 중앙아시아와 한민족 /김필영
발굴자료_ <신화일보>에 나타난 한국 임시정부Ⅲ /편집부
12월의 임시정부 소사
회원광장_ 화려했던 옛 추억의 교훈 /금기연
기념사업회 소식

◆ 13호(2006년 1월)

권두언_ 신년사 /김자동
2006년 임정기념사업회 역점사업_ 임시정부와 프랑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독립정신」이 어느덧 5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창간호부터 2010년 50호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밝힌다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진보적인 민족혁명이 이동휘 / 반병률
논단_ 안기부 X-파일 왜 공개되어야 하는가 /선병렬
김경민의 북한 이야기 1_ 나의 청진 방문기
1823세대,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_ 국익을 위해 필
력은 일장기 /강민국
회원광장_ 양국화 극북과 국민 대통합 /채의진
기념사업회 소식

◆ 14호(2006년 2월)

권두언_ 색깔론의 진화 /박노승
시론_ 지워야 할 일제의 잔상 /김위현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혁명이 신재호의 삶과 사상 /
이호룡
논단_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위한 모색 /임현영
김경민의 북한 이야기 2_ 나의 청진 방문기II
1823세대,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_ 일본의 '과거'
와 한국의 '현재' /안준영
2월의 임시정부 소사
회원광장_ 앞치마 두른 남자 교장선생님 /구월환
기념사업회 소식

◆ 15호(2006년 3월)

권두언_ 어린 시절, 임시정부와 함께 한 3·1절 기념식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안재홍과 대한민국임시정부 /
김인식
논단_ 대한민국의 범동을 말한다 /한홍구
김경민의 북한 이야기 3_ 평양을 향하여
1823세대,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_ 버려야 할 '일
본 강박관념' /김은영
3월의 임시정부 소사
회원광장_ 장수국가는 축복이다 /이종호
기념사업회 소식

◆ 16호(2006년 4월)

권두언_ 보훈정책의 목표는 민족정기 회복에 있다 /노
웅래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윤봉길의 생애와 독립운동 /김
광재
논단_ 87년만의 임정파리대표부 헌판식 /주섭일
한국경제, 큰 도약의 기회가 있다 /박창기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6_ 愛國少年의 凱劇—
幕 /우승규
회원광장_ 大過時代의 獨立不懼 /이응국
1823광장_ 일본, 동경의 대상? 무서운 나라? /이연지
이육사 선생님께 드리는 글 /임지현
대추리 황새를 발판에서 평화를 묻다 /안준영
독자기고, 임정기념사업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
면서 /정철용
기념사업회 소식

◆ 17호(2006년 5월)

권두언_ 예술가에게도 조국은 있다 /신복룡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우강 양기탁 선생의 생애와 구
국운동 /편집부
논단_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간행 /김광
재
김경민의 북한 이야기 4_ 인민들의 삶 속에서 깨지는

나의 고정관념들...
발굴자료_ 해방 후 친일관료들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과정 /이상돈
1823광장_ 내 작은 싸움과 독립투사들 /이정오
불꽃같은 삶을 산 김산 선생님께 드리는 글 /김태경
우리가 '알바'를 하는 건 말야... /대학생 편집부
회원광장_ 나라의 장래와 내부 종속 /이영자
기념사업회 소식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제2기) 단원모집

◆ 18호(2006년 6월)

권두언_ 한·일 관계의 재정립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일강 김철의 피나는 투쟁 /이
충찬
논단_ 독도, 이제 일본땅이 되는가 /김봉우
김경민의 북한 이야기 5_ 개성 가는 길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7_ <뒤 마려 金 先生>
의 亡命 /우승규
1823광장_ 영화 속의 일본 /박이정엽
역사 앞에 선 지식인,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과제 /최지
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대학생 편집부
기념사업회 소식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제2기) 단원모집

◆ 19호(2006년 7월)

권두언_ 국민과 정치 /김학민
임정기념관건립위원회 발족식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임시정부의 젊은 일꾼 일파 엄
항섭 /편집부
논단_ 인터넷대신 '책임투표제'를 /이준한
1823광장_ 특집 한총련 /대학생편집부
청년 학생과 한총련이 나아가야할 길 /김태현
나는 한총련 소속이라 생각하는가? /오지예·이현기
대학시절 한총련 활동을 했던 분 인터뷰
한총련에 대한 나의 생각 /박이정엽
회원광장_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새와 문서를 찾아서
/이봉원
기념사업회 소식

◆ 20호(2006년 8월)

권두언_ 8·15 해방기념일을 맞이하며...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홍진의 생애와 활동 /편집부
논단_ 연민은 항상 도덕적인가 /박구용
발굴_ 진보적인 민족운동가 계봉우의 삶 /김필영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8_ 반세기 전의 '배일
교훈' /우승규
1823광장_ 대추리 농활대- '평화를 택하러' /강연주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유혜진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단 출범
기념사업회 소식

◆ 21호(2006년 9월)

권두언_ 광복군 창립일을 국군의 날로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조소앙 선생의 삼군주의와 독
립운동 /조항래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 특집
화북지역 항일무장투쟁지 답사 종합평가 /김위현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방인섭
답사화보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 일지 /편집부
답사 단원들과 재중 애국지사 후손의 만남 /편집부
기행문 /김진한
기념사업회 소식

◆ 22호(2006년 10월)

권두언_ 항일의병운동과 전신작전통제권 /표명렬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우천 조완구 선생의 독립운동
/편집부
논단_ 독도분쟁은 미국 극동정책의 산물 /정병준
기고_ 나의 '경성트로이카' 친구들 /안재성
발굴_ '최연소 항일지사' 주재연을 아십니까? /이도삼
회원 광장_ 무장독립투쟁의 훈련교본 『보병조전』/윤경
자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 기행문 /박소영
기념사업회 소식

◆ 23호(2006년 11월)

권두언_ 광복후 최초로 평양에서 성묘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소해 장간상 선생 /편집부
발굴_ 독립운동가 박경순을 찾아서 /박관우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9_ 양계초와 다나까 /
우승규
방북특집_ 재북임시정부요인 후손 성묘단 방북일지 /김학민
재북임시정부요인 성묘단 화보
최초로 평양에 공식성묘를 가다 /방인섭
광복후 최초로 아버지 묘소참배를 다녀와서 /윤경자
평양 애국열사 능에서 /조명숙
평양, 그 말고도 가까운 우리의 반쪽 /김정옥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 기행문 /박창원
기념사업회 소식

◆ 24호(2006년 12월)

권두언_ 병술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김위현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윤기섭 선생 /김광재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기고_ 독립유공자 포상전수식장에서 /강귀영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0_ 여운형씨의 적전
상륙 /우승규
1823광장_ 한미 FTA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김이슬 외
학생운동은 정말 끝난걸까? /이응소
항일무장투쟁유적지 답사기 /정민기
기념사업회 소식

◆ 25호(2007년 1월)

권두언_ 정해년 새해를 맞으며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의 삶
을 되돌아 본다 /박한용
논단_ 중국 패권주의의 핵심, 동북공정 /유기홍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1_ 청조파와 개조파 /
우승규
회원광장_ 재개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
사 /김혜림
이 책을 권한다_ 임종국평전 /한승오
항일무장투쟁유적지 답사기 /정민기
기념사업회 소식

◆ 26호(2007년 2월)

권두언_ 임정기념사업회에 바란다 /이화영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시대에 모든 것을 던진 우당 이회영 /이덕일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_ 수작부리지 말자 /김학민
항일과 좌우_ 남북합작에 바친 박건웅 선생 /정창현·이재승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2_ 주마간산의 義勇團 /우승규
항일무장투쟁유적지 답사기 /정만기
기념사업회 소식

◆ 27호(2007년 3월)

권두언_ 과거사 청산과 수구언론 /김학민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참모총장' 류동열 /임형진
기고_ 민족공동체 정신의 기초 /김삼웅
독도영유권-역사가 말한다 /신용하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3_ 佛警의 亡命客(倭遇) /우승규
항일무장투쟁유적지 답사기 /정만기
기념사업회 소식

◆ 28호(2007년 4월)

권두언_ 4월의 독립정신과 민주이념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해공 신익희
기고_ 연합국 '한국 독도 영유권' 인정 전말 /신용하
이 달의 독립운동_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4_ 장덕진 군의 구국 무용 /우승규
항일무장투쟁 유적지 답사기 /정만기
김학민의 음식 이야기_ '대포'의 유래
독립정신 이모저모

◆ 29호(2007년 5월)

권두언_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배후 /김삼웅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심산 김창숙 선생
기고_ 독도와 EEZ /신용하
이 달의 독립운동_ 신희무관학교 개교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5_ 항일과 바꾼 애인 /우승규
항일무장투쟁유적지 답사기 /정만기
독립정신 이모저모

◆ 30호(2007년 6월)

권두언_ 미몽의 군상 /김위현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의산 최동우 /임형진
기고_ 백범 선생이 '반공당'에 시달려야 되겠는가? /김웅삼
백관도 프로젝트 /박창기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16_ 안중근 의사의 위 광 /우승규
나라를 팔아 얻은 재산 몰수는 당연
독립정신 이모저모

◆ 31호(2007년 7월)

권두언_ 호국보훈의 달, 국립 현충원에 대한 단상 /이재승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보재(溥霽) 이상설(李相奭) 선생
기고_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석주 이상룡선생 생가 /이항중
학생기고_ 심산心山 김창숙 선생과 2007년 시대정신 時代精神 /박창원
이 달의 독립운동_ 독립협회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_ 총대없는 商人獨立軍 /우승규
독립정신 답사단원 선별_ 「독립정신」제3기 답사단 출정
친일재산 국가귀소 결정_ 나라를 팔아 얻은 재산 몰수

는 당언
독립정신 이모저모

◆ 32호(2007년 8월)

권두언_ 중앙아시아 '집단적 기억'의 문제 /이두엽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이상재 선생
특별기고_ 일본 보수 우익은 기도하는가? /한승동
기고_ 백범선생의 '마지막 길' /박 도
이 달의 독립운동_ 8·15 민족해방
「독립정신」제3기 답사단 출정식
기고_ 해운대에 친일파 이광수 시비가 웅말인가? /김대갑
독립정신 이모저모
본회 추천도서_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 33호(2007년 9월)

권두언_ 다시 몽양을 생각한다 /조영건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지정전 장군
「독립정신」제3기 답사단 총평 /김호일
기고_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꿈꾸며... /류재호
「독립정신」제3기 답사단 일지 /백이식
특별취재_ 만주지역 항일 독립정신을 찾아(1) /김왕수
이 달의 독립운동_ 한국광복군 창군
학생기고_ 뽕샘엔 고은이의 독립정신 산행기 /최고은
독립정신 이모저모
본회 추천도서

◆ 34호(2007년 10월)

권두언_ 12월을 기다리는 사람들 /김학민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안중근 의사
특별취재_ 만주지역 항일 독립정신의 발자취를 찾아(2) /김왕수
이 달의 독립운동_ 청산리 독립전쟁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_ 꼬마 항일전사의 요람
「독립정신」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진은영
청년 독립_ 역사학도 진한이의 독립정신 산행기 /김진한
임정서가
독립정신 이모저모

◆ 35호(2007년 11월)

권두언_ 공동번영과 통일 시대, 상호 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 /정창현
정기총회
개회인사_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며 /김자동
축사_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과거를 되돌이킨다 /국회의장 임채정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의암 손병희 선생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_ 북방에서 백석에게 /김진규
이 달의 독립운동_ 광주학생운동
클릭! 연변_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황설련
청년 독립_ 자전거 매니아 원종이의 일본 여행기 /정원중
임정서가

◆ 36호(2007년 12월)

권두언_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의의 /윤경로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동생 김가진 지사 /김형묵
특별기고_ 「레닌기」와 「고려일보」의 역사와 현황 /김필영
이 달의 독립운동_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의 역사적 의미 /김삼웅
우리 역사 현장 답사기_ 서대문 형무소 「일본군 형무소 특별전」을 보고... /석이영

탐발_ 바른 역사 교육의 현장 항일역사도서관 /정만기
클릭! 연변_ 올림픽과 2008년 우리 올림픽 /황설련
청년 독립_ 자전거 매니아 원종이의 일본 여행기2 /정원중
「독립정신」답사단 기행문 우수작_ 독립군 그 발자취를 따라서... /조지영
독립정신 이모저모

◆ 37호(2008년 1,2월)

권두언_ 새정부에 바란다 /김자동
이 달의 임시정부 인물_ 노백린
이 달의 독립운동_ 한국독립당의 창립과 임정으로서의 대통합
나의 생각, 나의 주장_ 젊은이들에게 독립운동사를 가르쳐야 한다 /나종우
북쪽의 겨울나기를 보며 드는 생각들_ 북녘 동포 돕기는 '퍼주기' 아닌 '퍼주기' /정만기
다시보는 좋은 기사_ 민자사업의 15년 '흡혈' 역사 /길윤형
클릭! 연변_ 연변 조선족 결혼가정문제가 심각하다 /황설련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_ 잊혀진 선열 유족들 /우승규
역사현장답사_ 민중들의 든든한 삶의 터전, 수원화성 /송정선
탐방_ 중국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복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임정서가_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 38호(2008년 3,4월)

권두언_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후원을 양망합니다 /이현희
독립운동가_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 /박한웅
독립운동_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정통성과 의의
특별기고_ 외솔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을 되새김 /임용기
기고_ 의미있는 용인의 삼일절 기념식 /김학민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70주년 기념식
교단에 서서_ 격동의 현대사를 TV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남현주
클릭! 연변_ 얻는 것과 잃는 것 /황설련
역사답사_ 남한강변의 역사의 향기-여주 /류동연
임정서가
독립정신 이모저모

◆ 39호(2008년 5,6월)

권두언_ 효창공원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자 /이두엽
이번호의 독립운동가_ 만년청절의 지사 권동진의 사상과 독립운동
특별기고_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유정 조동호 /이현희
이번호의 독립운동_
한국광복군 국내정전대 /김광재
광복군 국내정전대 명단
등불같은 삶을 산 청년 장준하
광주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내온 반기운 편지
클릭! 연변_ 불향기를 전하는 사과배꽃 /황설련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_ 임정의 동상이동 /우승규
독립정신 산행기_ 설레이 있던 나의 첫 산행 /신지혜
다시보는 좋은 컬럼_ 대한민국 역사가 위대하다 /한시준
독립정신 이모저모

◆ 40호(2008년 7,8월)

권두언_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김보성
독립운동가_ 김학규 · 오광심 부부

| 독립정신 1호부터 50호까지 |

특별 좌담회, 1948년 8월 15일,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 중국인은 서러웠다 / 우수규
역사탐방, 백방사를 다녀와서 / 류동연
교단에 서서, 교생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교육 / 박미리
내
영사칼럼, 백범선생의 빛과 그림자 / 이영후
다시보는 좋은 기사, 대한민국 90년 정부수립 60년 / 이만열
독립정신 이모저모
제 4기 「독립정신」답사단원 선발
임정서가

◆ 41호(2008년 9,10월)

권두언, 건국 60주년 결코 안 된다 / 이이화
이 달의 독립운동가, 봉오동의 영웅 여천 홍범도 장군
특집, 다시 건국절을 생각한다
'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 / 김삼웅
건국절 추진은 헌법에 위배 / 강창일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대한민국임시헌법
화보, 독립정신 답사단 제 4기 활동사진
답사일지, 제 4기 「독립정신」답사단 일지 / 김태균
답사기행문,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 그 고난의 시대
에 동참하다 / 서홍관
독립정신 이모저모

◆ 42호(2008년 11,12월)

권두언, 2008년 가을 백범의 '나의 소원' / 김종철
이 달의 독립운동가, 한글에 바친 삶 한헌생 주시경 선생
이 달의 독립운동, 민족항일운동의 불씨 광주학생운동
역사탐방, 조선왕궁의 궁궐 경복궁을 가다 / 홍진영
4기 답사 기행문 우수작, 타국에서 만난 우리의 역사 / 홍용희
다시보는 좋은 기사, 조상이 애국해서 후손이 고생하는 사회 / 유인경
독립정신 이모저모
임정서가

◆ 43호(2009년 1,2월)

권두언, 새해를 맞이하며 / 김지동
이 달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민족의 혼을 일깨운 선각자
이 달의 독립운동, 28독립선언 동경유학생들의 독립선언, 3.1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 / 박태균
大韓民國憲綱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1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교단에 서서,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개악을 바라보며 / 김태우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마미를 콜라노」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이두희
독립정신 산행기, 10월, 유정이의 북한산 산행기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박건웅, 딸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 아버지

◆ 44호(2009년 3,4월)

권두언, 임시정부가 꿈꾸는 나라 / 한홍구
이 달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와 가족이야기 / 김경애
특별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 / 맹강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28독립선언 동경유학생들이 독립선언, 3.1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꾸는 정치 / 김삼웅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그 기본정신 / 김영수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알제리 전투 / 이두희
특별기고,故 광태영 선생의 삶과 투쟁 / 정동익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서홍관 박사,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 거기 있었네 / 학생편집위원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2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 45호(2009년 5,6월)

권두언, 최악의 남북관계, 임정의 경험에서 배우자 / 신명식
이 달의 독립운동가, 해방전국의 김구 활동과 그 의미 / 정해구
이 달의 독립운동, 반민특위의 좌절과 현재적 의미 / 허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상한 독립국가의 경제 / 정태현
이제는 큰 호흡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두업
독립정신 산행기, 가족년 독립정신 산악회 시산제(始山祭)를 다녀와서 / 주세영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호남호녀 / 이두희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임헌영 민족문제 연구소장, 이 시대 진정한 독립정신의 파수꾼 / 학생편집위원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3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아시아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는다

◆ 46호(2009년 7,8월)

권두언, 제헌헌법의 진보성과 현대에서 제헌헌법이 갖는 의미 / 임지봉
이 달의 독립운동가, 나창현의 삶과 독립운동 / 장석홍
이 달의 독립운동, 민족통일 의지의 화신, 조선민족혁명당 / 김영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꾸는 국방·외교 / 백기인
기고, 독립운동가 김충설 박사를 소개한다 / 박관우
다시보는 좋은 기사 1_ 파죽의 청년 제군들은 점자는가 / 이만열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무방비도시」와 「전화의 저편」 / 이두희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홍일선 시인,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또 다른 독립정신 / 학생편집위원
다시보는 좋은 기사 2_ 국치 백년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김효순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4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 47호(2009년 9,10월)

권두언, 다시 생각하는 우익 / 김지용
이 달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꿈 / 김호일
이 달의 독립운동, 독립을 향한 굴하지 않는 의지 '의열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꾸는 복지·여성·노동 / 홍성태
답사 총평, 임시정부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 김지동
답사 화보, 독립정신 답사단 제5기 활동사진
답사 일지, 제5기 「독립정신」답사단 일지
특별기고, 진실과 미래, 국치 100년 사업 공동추진위

원회 설립에 즈음하여 / 이만열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위대한 환상」과 「탈주한 하사」 / 이두희
다시보는 좋은 기사, '현대사 연구 금기'는 독립운동사 말살 의도 / 이덕일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5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東農 金嘉鎮傳(동농 김가진전)

◆ 48호(2009년 11,12월)

권두언, 정운찬 씨와 친일의 논리 / 신준수
이 달의 독립운동가, 김익한과 정정화 / 김학민
이 달의 독립운동,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적 성격 / 김형욱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꾸는 문화와 교육 / 강내희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나는 독립군가를 부를 때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 김건우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그림자 군단」, 레지스탕스의 어떤 기억들 / 이두희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원영에 극단 독립극장 대표, 관객들과 길게 호흡하고 싶다 / 학생편집위원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6_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백범일지

◆ 49호(201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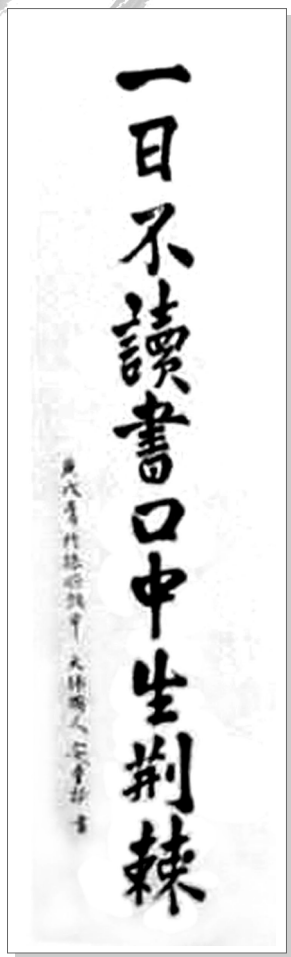
권두언, 국치 백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 / 김지동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경술국치 100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삼웅
독립운동, 충효를 함께한 일광 정시해 의사 / 정만기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박영민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칠레전투」, 역사의 멈춰진 미래로부터 / 이두희
다시보는 좋은 기사, 「국치」 100년, 속죄와 화해 / 이만열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 친일인명사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밑거름 / 박관우 학생편집위원
청년특집-Campus life, 젊은 그대,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 박상희 학생편집위원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북우 계몽주의 자전적 꿈의 기록 「꿈속의 꿈」

◆ 50호(2010년 3,4월)

권두언, 청산하지 못한 경술국치 100년의 굴레 / 정희상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1910년 한일조약에 관한 법사학적 재검토 / 김창록
독립운동, 이동녕의 삶과 정신 / 이현희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랜드 앤 프리덤」, 그들의 패배에도 경의를 / 이두희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독립정신 / 홍용희
청년특집-Campus life, 2010년 친일 청산의 문제 / 류동연
50호 특집, 독립정신 1~50호까지 / 편집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특집, 안중근 의사 유묵전 길을 찾아서, '임정은 나의 고향'...항일역사 날날이 증언할터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임정서가, 친일인명사전과 임종국 선생 「친일인명사전」

안중근 의사 유묵전

201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호에는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되새기고자 그의 유묵 18점을 공개한다.



■ 일일불독서구중생형극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 천당지복 영원지락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 황금백만량불여일교자

황금 백만냥도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하다



■ 인내

참고 견딘다는 안의사 평생의 좌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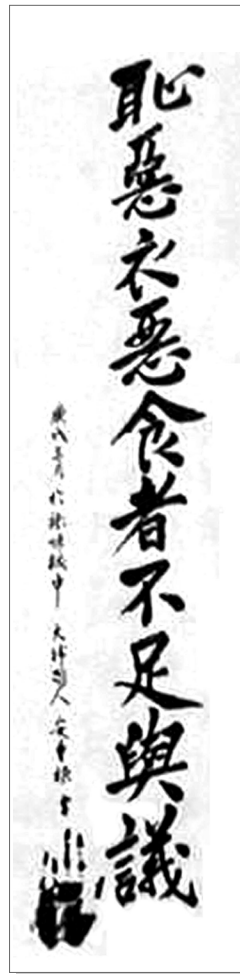
■ 빈이무침 부이무교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다



■ 장부수사심여철 의사임위기사운

장부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쇠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이 구름같도다



■ 치오의오식자부족여식

굶은 옷, 굶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



■ 박학어문약지이례

글공부를 널리 하고 예법으로 몸단속하라



■ 고막고어자시

스스로 잘난체 하는것보다 더
외로운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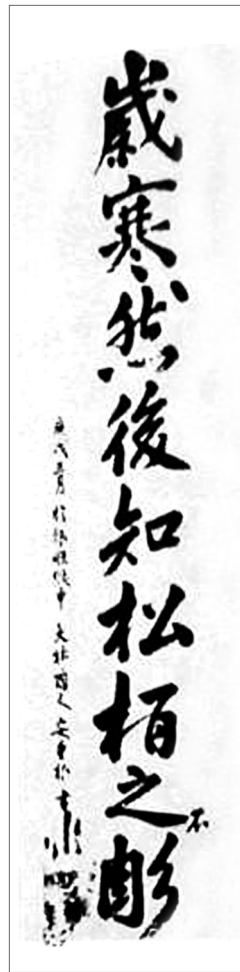
■ 인무원여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
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 위국헌신군인본분

나라위해 몸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 세한연후지송백지부조

눈보라 친 연후에야 잣나무
가 이울지 않음을 안다



■ 백일막허도 청춘부재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 자애보

스스로를 보배처럼 사랑하라



■ 국가안위 노심초사

국가와 안위를 걱정하고 애
태운다



■ 견리사의 견위사명

위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
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
숨을 바쳐라



■ 백인당중유태화

백번 참는 집안에 태평과 화
목이 있다



■ 연년세세화상사
세세연년인부동

해마다 계절따라 같은 꽃이
피건만 해마다 사람들은 갈
지 않고 변하네

“내 나이 팔순을 지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세상을 헛되
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가 2008년 창간
20돌 기념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한 원로들의 회고록 ‘길
을 찾아서’의 여섯째 화자인
김자동(82·사진) 선생은 뜻
밖에도 연재를 시작하는 감회
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동
안 독자로서 ‘길을 찾아서’를
즐겨 읽었지만 막상 그 주인공
이 되고 보니 의욕만큼 할 이
야기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식 직함인 ‘대한민
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과 ‘임정의 품 안에서’란 회고
록 제목에서 짐작하듯, 그는
1919년 3·1운동의 독립 열망
을 안고 중국 상하이에서 창설
된 ‘임정’과 삶의 궤적을 같이
하며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체험한 ‘마지막 산증인’이다.
새해는 일제 강점 100년이기

—
길
을
찾
아
서
—

‘임정은 나의 고향’

...

항일역사 낱낱이 증언할터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도 해 그의 증언은 한층 의미
가 깊다.

그는 28년 가을 임정 본부
가 있던 상하이시 프랑스 조계
안의 한인촌에서 태어났다. 대
한민국 선포 10년 만에 임정
요인들의 집안에서 첫 후손 출
생이었던 만큼 그는 제목 그대
로 ‘백범 선생의 품에 안겨 놀
며’ 자랐다. 당시 이미 작고한
할아버지 동농 김가진 선생은
대한제국 시절 김홍집 내각에
서 ‘홍범 14조’를 직접 기초한
개화파 관료이자 3·1운동 직
후 비밀결사 조선독립대동단
을 조직한 총재로서 일제의 감
시를 받자 일흔넷의 고령으로
상하이로 망명해 임정의 고문
을 지냈다. 아버지 성엄 김의
한은 임정의 실무요원이자 김
구 선생의 비서로 일했고, 어
머니 수당 정정화는 임정 요인
들의 식사 뒷바라지에서부터
독립운동 자금 모금까지 헌신
해 ‘임정의 잔 다르크’로까지
불리었다.



조선 후기 세도가로 꼽힌 안동김씨 후손인 김 회장 집안의 독립운동 헌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으로 칭송받아왔다.

(〈한겨레〉 2009년 8월14일치 참조)

46년 5월 부모와 함께 피란민 귀국선을 타고 서울로 환국할 때까지 그는 임정 청사를 따라 상하이~항저우~전장~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충칭 등지를 떠돌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남의 나라에서 나라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타향살이가 고달프지 않을 리 없었지만 국내에서 겪어야 했을 일제의 식민압제에 비하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덜 위축된 청소년기를 보냈던 셈이 아닐까. 물론 결코 편한 시간도 아니었지만.”

또래의 식민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본말’을 할 줄 모를 정도로 ‘특이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동안 줄곧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유받았지만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던 그가 이제 어렵사리 붓을 든 이유는 분명하다. “국사 과목마저 없어질 지경으로 역사교육이 날로 소홀해지고 심지어 왜곡되고 있어 임정을 비롯한 선열들의 항일투쟁사와 민족의식을 보고 들은 대로나마 남겨둘 의무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8년 5월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회’를 출범시킴으로써 “3·1운동과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30년이나 지워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한겨레〉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

겨레신문사 초대 사장과 회장을 지낸 청암 송건호 선생과는 6·25전쟁 직후 서울대 동창이자 54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함께 일한 ‘30년 지기’였다. 88년 창간 주주로 참여해 한때 〈한겨레〉 지국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61년 창간 3개월 만에 박정희 쿠데타 군부에 의해 폐간당한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기자로 일했던 그는 조용수 사장 처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사업을 하던 그는 2004년 9월 임정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199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계 웨스트팩은행 노조위원장으로 200일 넘는 파업을 이끌었던 둘째딸 김선현(50·오토 대표)씨가 사업체를 이어받아 기념사업회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그는 “을사늑약 100돌의 해에 뒤늦게나마 ‘본연의 업’에 매진할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1월4일치부터 연재되는 그의 회고담 정리작업은 조부의 일대기 〈동농 김가진전〉(2009년)과 모친의 자서전 〈장강일기〉(원제 녹두꽃·1998년)를 출판한 학민사의 김학민 대표가 함께 한다. ㉔

※ 〈길을 찾아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고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에도 매일 등재됩니다.





판소리로 되살아난 백범 김구

—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정신이 판소리로 되살아나 우리 앞에 펼쳐진다.

2월 24일(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개시연회를 갖은 후, 4월 12일(월) 오후 7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은 임진택 감독이, 소리는 국립창극단의 왕기석, 왕기철 형제가 맡는다. 또한 임옥상 화백이 백범의 삶을 한 그루 소나무로 형상화해 병풍에 담았다.

백범의 삶을 청년역정, 임시정부, 해방시대 등 3부작으로 나눠 구성한 이번 공연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백범뿐만 아니라 교육자이며 계몽가, 그리고 통일운동가로 활동했던 백범의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다.

백범서거 60주기를 맞아 지난해 판소리로 제작돼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번 공연은 우리 역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공연 참석을 바란다.

- 공연일시 : 4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 공연장소 : 서울 정동극장
- 공연문의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02-3210-0411





대한독립선언선포 제 9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1주년 기념식’이 2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삼균학회(이사장 조만제)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기념식은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해 이병구 서울지방보훈청장,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등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삼균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회장의 개식사, 삼균학회 이사장의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기념사, 원로 애국지사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 후 김창수 동국대 명예교수의 ‘김상옥 의거와 조소앙’, 다케이 하지메 동경도립일비곡 고교 교사의 ‘조소앙의 동경유학 일기’란 주제로 학술논문을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선생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추어 조국독립을 요구한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육탄혈전’의 무력적 대일 항전을 전 세계에 선포해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2.8독립선언 제 91주년 기념식

지난 2월 8일(월) 오전 10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해 이병구 서울지방보훈청장,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YMCA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이병호)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2.8독립선언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조선 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이 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 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독립정신」첫 산행이 3월 시작됩니다

2010년 「독립정신」첫 산행이 3월 27일 토요일, 봄을 맞이해 새롭게 시작된다. 2010년 첫 산행지는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도>로 유명한 인왕산이다. 산행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사직공원으로 오면 된다. 석 달 만에 갖는 산행인 만큼 많은 학생 및 일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산행일자 : 2010년 3월 27일 (토) 오전 10시
- 산 행 지 : 인왕산(仁王山)
- 집합장소 : 사직공원 내(사직단)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
- 문 의 처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02-3210-0411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도보로 5분)
버스(사직공원 하차)
 - 지선버스 : 7025
 - 간선버스 : 171, 606, 601, 706, 708
 - 광역버스 : 9703, 9706
 - 마을버스 : 종로05





친일인명사전과 임종국 선생

〈친일인명사전〉

김학민 / 본회 이사

2009년 11월, 18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친일인명사전〉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일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된 지 60여 년이 지나서야 민간에 의해 최초로 친일파 청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 반세기 이상 침탈을 당하고도, 그리고 그 침탈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해방되고도, 그 침탈의 역사와 잔재를 정리하지 못하고, 겨레를 배신하여 그 침탈에 부화뇌동한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대사였던 바,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은 우리 민족사에 일대 쾌거인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발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전의 발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요한 역할도, 별 도움도 준 것이 없다. 그러나 1983년 일주일에 2, 3일 국립도서관을 드나들며 일제 시대에 발간된 신문이나 잡지, 기타 문서에서 부일, 친일의 흔적들을 일일이 복사하여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임종국 선생을 만나면서 선생과 함께 최초의 친일인명사전을 구상한 바 있어, 이번 사전의 발간은 내가 이룬 성과와도 같아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다.

1983년 당시 나는 수년간 근무하던 한길사에서 퇴직하고 내 이름을 따 ‘학민사’라는 신생 출판사를 차렸다. 그리고는 김삼웅, 정운현 두 분과 협의하여 〈친일파〉 1, 2, 3

권과 〈친일파 죄상기〉, 〈창씨개명〉 등 여러 권의 친일문제, 친일파 관련 단행본을 발간했다. 특히 〈친일파 죄상기〉에는 해방 직후 발간된 〈친일파 군상〉에 수록된 친일파 명단과 간단한 그들의 이력을 다시 정리하여 수록, 일종의 축소판 친일인명사전처럼 실었다.

임종국 선생은 국립도서관

에서 일을 끝내면 대개 마포 신수동에 있는 학민사로 와 저녁을 드시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 맥으로 내려갔는데, 복사 문치가 많으면 학민사에 보관하여 두고 가시기도 했다. 그때 나와 임 선생은 친일파들의 친일행위를 증거 하는 문학작품이나 논설, 기고문 등을 책으로 엮어 내는 것이 낫냐 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 그래서 친일 소설집,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친일 논설들

을 모은 친일 논설집을 기획했는데, 그 책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민사에서 내지 못하고, 당시 한 사무실을 쓰고 있던 실천문학

사로 넘겨, 결국 그곳에서 발간되었다.

이때 위의 두 책과 같이 임종국 선생과 기획한 책이 친일인명사전이었다. 물론 친일인명사전은 기획대로 그때 발간하지



못하였고, 또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엄청난 작업이 일개 편집자의 아이디어나 신생 출판사가 감당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지만, 임종국 선생의 그 외로운 선행 작업이 없었다면 사전 편찬 작업은 훨씬 뒤로 미루어졌을 것이라 확신한다. 삼가 임종국 선생의 영전에 숙연히 인사 올린다. 선생께서도 후학들이 선생의 유지를 이은 것에 흠뻑 기뻐하시리라.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0년 1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회원명	1월	회원명	1월	회원명	1월
강만길	10,000	김학근	10,000	윤경자	30,000	정환기	10,000
공성진	30,000	김호진	10,000	윤한옥	10,000	조명숙	10,000
곽태원	50,000	김희선	10,000	이규중	30,000	조세현	20,000
권순갑	20,000	남만우	30,000	이규호	30,000	조영빈	5,000
김경진	5,000	노시선	30,000	이두엽	20,000	조용준	30,000
김광림	30,000	노용래	30,000	이두희	30,000	조용환	30,000
김광재	5,000	류시경	30,000	이병윤	10,000	조인형	10,000
김동완	10,000	민향선	10,000	이상준	200,000	조정훈	30,000
김동현	10,000	박두곤	10,000	이성배	10,000	조회환	10,000
김보성	10,000	박원표	50,000	이영국	10,000	주세영	30,000
김선군	10,000	박은봉	30,000	이영춘	30,000	주철기	30,000
김성곤	10,000	박의란	30,000	이영후	30,000	천정배	10,000
김숙정	50,000	박정근	30,000	이용규	10,000	최문순	10,000
김영림	30,000	박형순	10,000	이원혁	100,000	최영진	10,000
김용덕	10,000	백낙청	10,000	이응국	5,000	최인국	10,000
김원규	10,000	방인섭	30,000	이일선	30,000	최정식	10,000
김원유	50,000	서영훈	30,000	이종락	30,000	최정호	10,000
김 위	20,000	서홍관	30,000	이창복	20,000	함세웅	30,000
김위현	50,000	신명식	10,000	이항중	30,000	허석현	5,000
김자동	100,000	신준수	20,000	이호현	20,000	홍순권	10,000
김재철	100,000	심재권	30,000	이화순	30,000	황용만	5,000
김재홍	10,000	안영찬	5,000	인순창	30,000		
김정욱	50,000	엄근학	10,000	임재경	5,000		
김종배	20,000	엄기남	50,000	장문호	10,000		
김중숙	10,000	오승숙	10,000	장은기	20,000	◆ 특별회비	
김진경	5,000	오은주	20,000	장팔순	10,000		
김진모	20,000	오정수	20,000	장 흥	20,000	회원명	1월
김진영	10,000	우상호	30,000	정만기	30,000	(주)오티오	6,000,000
김진현	50,000	원영애	30,000	정철승	30,000	(주)맥철강	2,000,000